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4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자 • 신종감염병과장 • 담당자	문 백 수 ☎440-5431 김 남 이 ☎440-543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 확보해

- 보완 검사법 도입, 분석능력 확보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 변이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 차단 위해 최선 -
-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대비 검사 감시체계 구축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분석시스템(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갖추고 자체적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NGS(차세대 염기서열분석) :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은 최근 병원체 전장유전체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병원체가 가진 유전정보에 대한 특성분석 정확도가 높아 이를 통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염기서열(약 3만개)을 분석하고 변이유형을 확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확인 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중 병원체의 전파력과 중증도, 백신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의 주요변이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5종의 관심변이를 지정분류하고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해 주요변이부위\*를 검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주요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변이로 지정된 람다와 뮤 변이의 감시도 수행하고 있다.

\* 주요변이부위 선별검사 : E484K, K417N, N501Y, L452R, L452Q, E484Q, P681R, P681H

또한 매일 확인되는 양성샘플의 주요변이부위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해 방역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있다.

이번 전장유전자분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요 변이부위 선별검사에 대한 보완 검사법을 도입하고 자체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을 확보해 향후 새롭게 출현하게 될 다양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변이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인천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꾸준히 공조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붙임〉 코로나19 검사 사진

